

■ 2026 새해설계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 집중”



고물가·고금리 복합 위기 속 규제 개선·노사 상생 강조

청년 일자리 연결 강화…지역경제 재도약 출발점 제시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병오년 신년 시를 통해 복합 위기 국면 속에서도 지역 기업의 경영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붉은 말처럼 전취적이고 역동적인 기운으로 위기를 돌파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는 의지다.

양진석 회장은 지난해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와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겹치며 기업 경영 전반에 부담이 누적된 해로 진단했다.

산업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인력 구조 변화까지 더해지며 투자와 고용, 수출 전반에서 지역 기업들이 쉽지 않은 선택을 강요받았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현장을 지켜낸 회원사들의 기업가 정신이 지역 산업의 중심을 떠받쳐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광주경총은 기업이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차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현장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이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견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전환의 속도를 높여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노사관계 역시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봤다.

양 회장은 “노동이 존중받으면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대립보다는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

겠다”고 밝혔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쓴다. 기업과 인재를 잇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청년들이 이 지역에 머무르며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라며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를 통해 지역의 인적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는 말처럼 지금의 위기 앞에서 멈춰 설 수는 없다”며 “미부정제”의 자세로 회원사와 함께 현재의 도전을 넘어 더 큰 도약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기아, 지난해 313만5803대 판매…창사 이래 최대

쏘렌토, 2002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10만대 판매 돌파

스포티지, 56만9688대 최다…셀토스와 쏘렌토 뒤이어

기아가 1962년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의 연간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기아는 5일 2025년 한해 동안 국내 54만5776대, 해외 258만4238대, 특수 5789대 등 2024년 대비 2% 증가한 313만5803

대를 판매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2024년

과 비교해 국내는 1%, 해외는 2% 증가한 수치다.

기준 연간 최대 판매는 2024년 기록한 308만9300대로 국내에서 54만10대, 해외에서 254만3168대가 판매됐으며 특수 차

량은 6122대 판매됐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스포티지로 56만9688대가 판매됐으며 셀토스가 29만9766대, 쏘렌토가 26만4673대로 뒤를 이었다.

기아는 2026년 EV 판매 및 생산 확대, PBV 공장 본격 가동, HEV 라인업 강화, 해외 신시장 접두 공략 등을 통해 판매 성장세를 지속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국내 56만5000대,

해외 277만5000대, 특수 1만대 등 글로벌

335만대 판매를 목표로 세웠다.

지난 한해 동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쏘렌토로 10만2대가 판매됐다.

쏘렌토는 2002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1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승용 모델은 레이 4만8654대, K5 3만6598대, K8 2만8154대 등 총 13만9394대가 판매됐다.

쏘렌토와 카니발, 스포티지를 포함한 RV 모델은 셀토스 5만5917대, EV3 2만1212대, 니로 1만3600대 등 총 36만5105대가 판매됐다.

상용 모델은 봉고3기 3만6030대 팔리는 등 PV5와 버스를 합쳐 4만1277대가 판매됐다.

지난해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스포티지로 49만5171대가 판매됐으며 셀토스가 24만3849대, K3(K4 포함)가 21만8349대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특수 차량은 국내에서 2429대, 해외에서 3360대 등 총 5789대를 판매했다.

기아 관계자는 “지난해는 관세 영향 등 비호호적인 산업환경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HEV 중심 성장, 유럽에서의 볼륨 EV 중심 시장지배력 확대 등 각 시장에 맞춘 파워트레인 판매 전략으로 글로벌 성장세를 이어갔다”며 “올해는 텔루라이드와 셀토스 등 핵심 SUV 차종으로 HEV 라인업 확대, 생산 및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판매 성장세를 지속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Kumho Tire with Ansible Motion**  
Driving the Future with Digital Tires

KUMHO TIRE

ansible motion  
driving simulation excellence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용인중앙연구소에서 김영진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과 김기운 VPD센터장이 앤서블 모션(Ansible Motion) 사 CEO 댄 클락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금호타이어, 차세대 디지털 타이어 개발한다

영국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전문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전기차·고성능 차량용 분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 확보

금호타이어는 영국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전문기업 앤서블 모션(Ansible Motion)사와 차세대 디지털 타이어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 김영진 전무와 앤서블 모션사 CEO 댄 클락(Dan Clark)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첨단 디지털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타이어 성능 검증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기차(EV) 및 고성능 차량용 타이어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앤서블 모션사는 실제로 주행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하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차량 동역학, 주행 안전성, 승차감 등 다양한

주행 특성을 가상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앤서블 모션사의 최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도입해 실차 시험과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성능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호타이어는 차세대 디지털 타이어 기반으로 주행 환경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 김영진 전무는 “Ansible Motion사와의 협력은 금호타이어의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디지털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첨단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극

활용해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고부가가치 제품을 선보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앤서블 모션사 CEO 댄 클락은 “금호타이어와의 협력은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기술이 타이어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양사의 기술적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파트너십은 금호타이어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기술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호타이어는 첨단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기술을 연구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적용해 개발 효율성과 정밀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 디지털 타이어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및 고성능 차량용 타이어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암 환우는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입니다.

**BioMed**  
비오메드요양병원

061) 870. 755  
경남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59  
(도곡온천단지 9)

“암 재활 누구나 선택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Dr. Hager 기념 비오메드 운영병원

암 통증 관리  
암 환자 재활치료  
재활·전이 관리  
항암 부작용 완화  
면역력 증진센터  
암 예방

전신본원모연  
수지로센터  
고령선소센터  
기부·정은동기  
VIP 1인실  
VIP 2인실  
다인실  
암 투증  
수술  
간강증진실  
통증치료실  
국민배우 故 신성일 선생님이 선택한 병원